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 정 희* · 최 동 숙**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A Study on the Family Life Valu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n, Jeong-Hee* · Chol, Dong-Sook**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value on the family life of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data for this study has been collected from 808 students of kangwon-do by Liert-scale Type questionnaire.

The data were processed by SPSS-X Program.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Pearson's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Cronbach's coefficient have been calculated and analysed.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ly, the overall average of value of family life was 3.25 points which reflected more or less modern tendency.

Second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ent's value of family life affected by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such as sex($P < .001$), school years($P < .001$), group($P < .01$).

Thirdly, the overall average of the student's interest in the home economics was 3.74 points which reflected heigher tendenc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ent's interest in the home economics according to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such as sex($P < .001$), school years($P < .05$), living standard($P < .01$), residential area($P < .001$).

Fourthly, the student's overall interest in the home economics and their view on the family life were correlated as follows ; Spare time($r = -.13$), parents-children($r = -.12$), relatives and neighbors($r = -.08$) show lower correlation and household work($r = .07$) show higher correlation.

Fifthly, the area which has closest correlation with the value on the family life was the value on

family economics, whereas it has been shown that the field with least correlation was the area of supporting the spare time.

Sixthly, main changes that affect the student's value of the family life were such as sex ($\beta=.43$), school years($\beta=.18$), group($\beta=-.15$) and interest degrees($\beta=-.12$). These whole explanatory power was 21%.

I. 서 론

1. 問題의 提起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극심한 가치 척도의 혼란 및 가치관의 혼재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가정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가족 구조와 가정의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와 종래의 가족간 연대 의식, 밀접한 친족 관계, 노부모 봉양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부권 상실은 자녀에 대한 가정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던 전통적인 가정 기능은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중심이 되었고, 주택 구조의 변화와 가사의 기계화 및 상품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해줌과 동시에 남성들도 쉽게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 기준으로 부터 유래되는 미풍 양속과 서구로 부터 도입된 생활 방식 및 행동 양식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알맞은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정범모(1977)는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가치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생활에 어떤 지표가 없고 잡다한 선택요인들 중에서 어느것도 분명히 결정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신념이나 주의도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유행에 추종하는 맹목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개인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존속과

발전도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은 한 개인의 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의 안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그 사회 문화 가치관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속한 최초의 집단 즉 가정을 통해서이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습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의 가정을 운영해 나갈 청소년 집단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가정생활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등이 대부분이며,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연구는 별반 이루어진 바 없다. 뿐만 아니라 95년도 부터 시행될 6차 교육과정은 모든 중학교에서 남녀공수로 가정을 이수하도록 함에 따라 가정과 교사 및 가정과 교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남녀 학생들의 가정생활 가치관 여부는 가정과 교육에 대한 그들의 수용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과 교사들이 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가정교과의 방향제시와 교수 학습방법의 개발 및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당면과제로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연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研究問題 및 研究模型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

치관과 가정교과 관심도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고등학생의 家庭生活 價値觀은 背景變因에 따라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연구문제2] 중고등학생의 家政敎科 關心度는 背景變因에 따라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연구문제3] 중고등학생의 家政敎科에 대한 關心度와 家庭生活 價値觀은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

[연구문제4] 중고등학생의 背景變因과 家政敎科에 대한 關心度가 家庭生活 價値觀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한가?

상기의 연구문제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II. 理論的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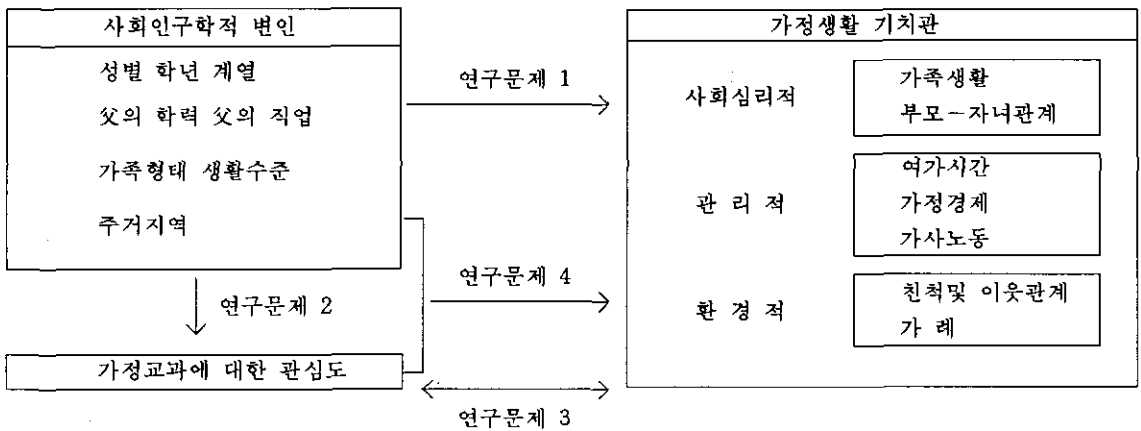
1. 家庭生活 價値觀

1) 傳統的 價値觀

우리나라는 17C 중엽 이전까지만 하여도 가족형태, 혼인생활의 장소, 양자제도, 제사, 재산상속 등의 면에서 볼 때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부장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노비와 토지상속 등 재산상속에서도 아들과 딸 사이에는 차별이 없었으며, 특히 제사에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지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가정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자기파의 정치세력 강화를 위하여 친족 집단을 확고히

형성하려는 것으로부터 기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속, 가계계승이 父, 子, 孫子로 이어졌으며 아들이 없고 딸, 외손이 있더라도 자기와 동일한 父系 혈연을 가진 자와 사회적인 부자관계를 맺어서 그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양자 제도가 확립되었다. 최재석(1983)은 조선 중기 이후의 가족의 성격을 “남녀간 혹은 자녀간, 친손, 외손간이 평등에서 차등으로 변화했다”고 함축하였다.

전통적 가부장권의 特徵을 조옥라(1986)등은 첫째: 가족원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며, 둘째: 가산에 대해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고, 셋째: 가계계승자로서 家의 영속성을 실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요약하였다. 자녀중에서도 아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것이 된다. 노후의 생활 보장과 노동력의 문제, 제사에서 아들은 계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씨족의 존속, 조상제사의 영속, 성씨의 불멸, 종족의 보존 등의 문제가 아들을 회구하는데 깊이 관련된 문제이다. 父는 子의 윤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경제적 책임도 졌으며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억제하고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통적 孝의 가치관은 도시화, 근대화와 더불어 자아실현이라는 孝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전통적인 孝보다 개인의 독립정신, 강한 신념, 완전한 인격형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장남 책임의 노부모 봉양이 점차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들로서의 전통적 역할이



<그림 1> 研究 模型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희섭(1980)은 傳統的 價値觀의 중요한 特徵으로 인본주의(human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및 집합주의(collectivism)를 들고 이 세가지 전통적 가치와 대칭적 성격의 근대적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즉 인본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써 근대의 물질주의(materialism)와는 달리 정신적 가치 또는 인간적 가치를 더 강조하였다. 권위주의적 가치는 上下序列 價値觀으로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내의 인간관계, 언어생활 및 정치문화 등에 뿌리깊이 잠재해 있는 전통적 가치로서 평등주의적 가치가 외래적으로 수용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치는 서로 대립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합주의적 가치의 특성은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등의 여러 수준의 집합체로 강조되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발적, 자율적,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야 하는 개인과 인간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집합체의 충성보다는 개인주의적 풍조가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전통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남녀관계가 개방적이기 보다는 남녀유별인 경우가 많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효도가 강조되며, 국가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권리의 의무의 관계보다 전통사회에서와 비슷한 충성이 자주 거론되기도 한다. 효도, 가문, 전통적인 도덕성의 강조, 연장자에 대한 존경, 귀속주의적인 사고방식, 남녀유별,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중요시되던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가정이 개인의 삶에 절대적이며 유일한 집단으로 존재해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려한다면 방향 의식을 찾고 價値觀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정생활을 보존하는데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近代의 價値觀

우리나라는 대체로 19세기말 문호를 외국에 개방한 시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거나 근대의 출현과 더불어 근대화론이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근대적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서구로부터 한국에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변화는 해방이후라 볼 수 있다.

Weber(1947)는 근대사회의 特徵的 樣相에 대하여 첫째: 다수의 기능적으로 專門化된 組織體가 있으며, 둘째: 기능적으로 特殊化되고 文化的으로 지향된 결사체들 간에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셋째: 친족관계와 집단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이라 하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을 배경으로 현대사회의 가족관계는 그 구조의 중심을 부부관계에 두며 남녀 평등의 이념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실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가치관에서의 결혼은 애정에 기반을 둔 당사자들의 결합으로서 결혼의 목적도 家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자신의 일방적인 효와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 복종의 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유대에 의한 상호애정으로 맺어진다. 즉 근대적 가치관은 집단으로서의 가정보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 독립심, 효율성, 물질적 번영, 합리성과 법의 지배, 개방성 등이 중요시 된다. 이는 Adams(1980)가 가족의 미래에서, 사회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치관이 점점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아실현으로 변해가고 있고 개인적인 행복에 관계되는 것이 점점 더 우세해 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가정생활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조화가 얼마나 무리없이 이루어지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겠다.

2. 下位領域別 價値觀

가정학에서 가치관에 관한 관심은 1901년 Lake Placid Conferences 에서 논의되었다. 가정학자들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가치관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치가 가정관리학의 중요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이후부터 생활속에서 가치 이념을 규명하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가정학에서의 가치관 연구를 하위영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家族生活에 대한 價値觀: 각각의 가족은 문화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다르며, 따라서 문화적 대행자(Cultural agent)로서의 가족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족은 사회의 급격한 충격을 가정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인간에게 전해주며 인간은 가

정을 통해 사회화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가치관은 그 가족만의 생활 스타일을 나타내주고 각 개인은 여기에서 그 성격의 일부분으로 내면화되는 방향 지침과 표준을 이끌어 낸다. 가족의 가치는 일반적인 야망이나 단기적 목표보다는 더 영구적이며 상당한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획득되어 세대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의 가치관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생활 양식을 결정하여 가족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현 사회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 철학과도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가치관 등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유지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餘暇時間에 대한 價値觀: 여가란 자의에 의한 휴식, 오락, 자발적인 사회참여, 비금전적인 목적으로써 자신을 위한 정보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이다. Nickell, Rice 와 Tucker(1976) 등은 미국 가정의 가치로 여가, 편리, 안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가정은 가정의 즐거움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근면하고 부지런한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여 일하는 시간만을 중요시 하던 전통사회에서 여가란 부차적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기계화되어 가면서 여가생활을 하게되었다. 박인덕(1979)은 여가란 쉬는 것 이외에 기분전환과 자기개발의 기능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육체적 휴식이 끝나면 스포츠, 여행, 산책, 등산, 음악 등을 즐기는 기분전환 그리고 비금전적인 목적으로서의 자신을 위한 예술, 학술, 지식습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래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의 세가지 기능이 체질화되어 노동, 휴식, 여가로 균형을 이루는 생활을 권하고 있다. 이와같이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현대사회와 같은 인간소의 현실 속에서 가정은 가족들이 인간회복을 할 수 있는 여가의 의미로서 가치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3) 父母-子女關係에 대한 價値觀: 과거의 부모-자녀관계를 보면 친자중심으로 이어지는 가계가 존중되었다. 자녀중에서도 아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노후의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문

제를 담당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과거와 같이 자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허전함을 면치 못하며 의식의 깊은 곳에 아들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제 아들의 절대적 중요성만을 강조했던 의식구조는 상당히 변화되었고 아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아들과 딸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침투되고 있다. Girbran (1973)은 예언자에서 부모와 자녀간은 순종을 강요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인격적 유대에 의하여 상호애정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親戚 및 이웃關係에 대한 價値觀: 친척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진 또는 家의 단위로 한 일정범위로 이루어지진 혼인과 혈연으로 인하여 성립한다. 근대에 있어서 가족의 고립을 조장하는 사회, 경제제도의 압력과 전인격적 인간관계의 전통적 유형의 보존, 즉 친척제도를 유지하며 그것을 통하여 사회의 전통을 존속시키려는 두가지 상반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이 친척이라는 더 넓은 인간 관계망에 연결지어짐으로서 그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여 계속 그것을 살려나갈 수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집단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간공동에 뿌리를 박을 수가 있다. 한 집안이 가족적 행사를 위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한다는 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소속 의식을 갖게하여 인간관계의 풍부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며 이 기능은 고립된 핵가족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화한 현대생활에서 가족의 고립과 개인의 소외를 방지하는 데는 친척관계를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웃은 지역적으로 近住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성립되고 있는 제 1차적 비공식적 집단이며 주민 상호간의 面識의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이다. 도시화에서 이웃관계는 약화되거나 소원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관계를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5) 家政經濟에 대한 價値觀: 오늘 우리의 생활은 보존 보다는 소비가 강조되고 있으며 정신주의가 지배했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삶의 태도는 부유과 이기적인 삶의 형태를 이끌어 자원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끝없는 소비욕망을

채우기 보다는 간소한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내면적 풍부한 삶의 형태를 가지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하며 근검절약하고 검소한 물질적 생활습관과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가정경제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6) 家禮에 대한 價値觀: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된지도 10년을 넘고 있다. 생활이 현대화되어 감에도 각종 의례에 있어서 오히려 허례허식이 만연되어 그 정도가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 특히 혼례문제에 있어 합리적 사고와 근검절약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결혼예물, 혼수, 지참금에 대한 불만이 결혼생활에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볼때 혼례문제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문제되는 혼수와 예물을 과분하게 할 수록 전통적인 격식을 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전통적인 가치관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신적인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각자가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觀: 기술문명의 발달로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가정에도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정신적 문제가 생기게 되어 가정의 생산기능의 감소, 소비기능의 확대, 기술혁신,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으로 양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질적으로 심화된 가사노동은 주부 한 사람으로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Shaw (1932)는 한 개인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회적인 봉사는 가정을 건설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전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주부의 노동은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취급하거나 가사노동에 대해 지불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가사노동에 대해 국민경제학적 인식이 낮은 것은 주로 여성 즉 가정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 그 자체를 별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노동에는 그 성과에 대한 댓가 즉 보수가 지불되지 않고 따라서 경제적 순환과정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와 한편으로 실물경제의 순환이 종료되는 최종적 소비단

계에서의 소비를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단순 소비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은 어디까지나 가족 전체의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자원이 소요된다. 가정생활이 계속되는 한 질적, 양적 경감은 있으나 가사노동이 없을 수 없으며 가사노동의 결과 산물은 영속하는 것도 아니고 재빨리 끝나지 않는 일도 있어 일종의 성취감의 결핍을 느낄 수도 있고, 피로감, 시간부족, 시설미비,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지체 등으로 가사노동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어 주부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술한 각 領域에 대한 家庭生活 價値觀은 家庭의 目標와 基準 設定에 基礎가 되며 서로 相互關聯性을 내포한다.

III. 研究方法

1. 道具의 作成 및 信賴度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을 사회심리적 측면으로 家族生活, 부모-자녀관계, 관리적 측면으로 餘暇時間, 家政經濟, 家事勞動 환경적 측면으로 親戚 및 이웃關係, 家禮 등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62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家政敎科에 대한 關心度는 家政敎科, 가정경영,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및 아동분야의 6 문항이며, 배경변인은 성별, 학년, 계열,父의 학력 및 직업, 가족형태, 생활수준, 주거지역의 8 문항으로 작성하여 총 7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생활 가치관에 관한 척도는 Likert-scale 의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3 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 높을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문항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설문내용이 역방향으로 된 문항 (1, 11, 17, 20, 54 번)은 record 하여 분석하였다.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척도 역시 Likert-scale 의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많을수록 관심도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한 타당도는 전공교수로부터 검증받았으며, Cronbach's 계수는 가족생활 .65 여가시간 .42 부모-자녀관계 .56 친척 및 이웃관계 .64 가정경제 .79 가례 .68 가사노동 .77 과 가정교과 관심도 .70 으로 평균 .67 이며 전체 가정생활 가치관의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2. 調査期間 및 對象

본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1994년 6월 20일-24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1994년 7월 4일-7월 16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춘천시와 춘천군, 홍천군, 양구군, 원주군 그리고 영월군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850 부를 배부하여 839 부를 회수하였으나 그중 미비한 것을 제외시키고 808 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3. 資料處理

자료처리는 강원대학교 전자제산소의 SPSS-X Program 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및 산술평균을 구하였고, 연구문제 1 과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해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 연구문제 3의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4의 검증을 위해 단계적 중회귀 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인은 가정생활 가치관이며, 독립변인으로는 배경변인과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를 설정하였다. 이들 독립 변인중 명목척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성별은 남자의 경우 0, 여자 1. 계열은 인문계의 경우 0, 실업계 1. 가족형태는 핵가족인 경우 0,확대가족 1. 주거지역은 시지역인 경우 0, 읍면지역 1로 처리하였다.

IV. 調査結果 및 論議

1.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본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비슷하며,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적게 표집된 반면 중학교 2학

년이 23.6% 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고등학생 계열 분포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약간 많이 표집되었다.父의 학력은 고졸이 35.3%로 가장 많으며, 중졸 25.4%, 국졸 24.6% 순으로 표집되었다.父의 직업은 농.어.축산업이 34.4%로 가장 많고 행정직이 5.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79.9%를 차지하였고, 생활수준은 대부분 중류이상으로 나타나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았으며, 주거지역은 읍면지역이 54.5%로 다소 많았다(표 1).

2. 調査結果 및 論議

1) 가정생활에 대한 전체 가치관 평균 3.25점으로 다소 근대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세분하여 보면 가족생활 3.41, 가정경제 3.51점, 가례 3.28점, 가사노동 3.84점으로 비교적 근대적인 경향을 보인데 반해 여가시간 2.87점, 부모-자녀관계 2.75점, 친척 및 이웃관계 2.98점으로 다소 전통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근대적인 경향을 보였고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전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 취업률의 증가 및 사회진출, 경제적인 능력, 기계기술의 발달에 의해 여성과 타가족원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다소 전통적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효도나 봉양문제 등은 자식의 도리며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 하위영역별로 볼때 가족생활, 가정경제, 가례, 가사노동은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여가시간, 부모-자녀관계, 친척 및 이웃관계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구분되는 현상은 가족가치관이 전통과 근대의 이원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 이론적으로나 일반론에 있어서는 근대화되고 있으면서 행동면이나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통성이 강하며, 이런 모순 자체가 결국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단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

2) 背景變因에 따른 家庭生活 價値觀의 差異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전체 가치관 및 하위영역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1) 家庭生活全體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전체 가치관은 성별(P<.001), 학년(P<.001), 계열(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생활 가치관 전체 평균이 남학생 3.05점, 여학생 3.45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으며 하위 영역별에서는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아 학생들

〈표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배경변인	구 분	남		여		전 체	
		f	%	f	%	f	%
	남					399	49.3
	여					409	50.7
학 년	중학교 1학년	37	9.3	34	8.3	71	8.8
	중학교 2학년	120	30.2	70	17.1	190	23.5
	중학교 3학년	48	12.1	103	25.2	152	18.8
	고등학교 1학년	86	21.6	69	16.9	155	19.2
	고등학교 2학년	37	9.3	89	21.8	126	15.6
	고등학교 3학년	70	17.6	44	10.8	114	14.1
계 열 (N=396)	중 인 문 계	87	22.0	98	24.0	185	23.0
	실 업 계	107	27.0	104	25.4	211	26.2
						412	50.8
父의 학력	국 졸	109	27.1	91	22.2	200	24.6
	중 졸	88	22.1	117	28.6	205	25.4
	고 졸	137	34.4	148	36.2	285	35.3
	전문·초급대졸	4	1.0	7	1.7	11	1.4
	대 졸	42	10.6	31	7.6	73	9.1
	대학원졸	19	4.8	15	3.7	34	4.2
父의 직업	전문직	35	8.8	26	6.4	61	7.6
	행정직	19	4.8	28	6.8	47	5.8
	사무직	38	9.5	38	9.3	76	9.4
	판매직	27	6.8	30	7.3	57	7.1
	서비스업	50	13.5	35	8.6	85	10.5
	근로자및 기능직	50	13.5	56	13.7	106	13.1
	농·어·축산업	137	32.0	161	37.9	298	34.4
	기 타	37	11.1	41	10.0	78	12.1
생활수준	핵가족	326	82.2	320	77.8	646	79.9
	확대가족	71	17.8	91	22.2	162	20.1
생활수준	상	25	5.7	20	4.7	44	5.4
	중 상	96	23.1	96	23.5	192	23.8
	중	222	55.7	252	61.6	474	58.7
	중 하	46	12.7	34	8.3	80	9.9
	하	11	2.8	6	1.9	18	2.2
주거지역	시지역	190	47.9	166	40.6	368	45.5
	읍·면지역	213	50.4	239	58.4	440	54.5

N=808

(그림 2) 家庭生活 價値觀의 一般의 傾向 領域別, 男·女·全體 平均

가정생활 가치관	전통적				근대적
	1	2	3	4	5
가 족 생 활					3.19
					3.61
					3.41
여 가 시 간					2.88
					2.85
					2.87
부 모 -자 녀 관 계					2.65
					2.84
					2.75
친 적 및 이 윣 관 계					2.83
					3.13
					2.98
가 정 경 제					3.18
					3.84
					3.51
가 려					3.08
					3.48
					3.28
가 사 노 동					3.53
					4.13
					3.84
가정생활 전체 가치관					3.05
					3.45
					3.25

남 자 여 자 전 체

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학생에게 뿌리깊이 전통성을 고수하도록 영향을 미치며 지배적인 남성 집단이 전통적인 성차를 유지하려는데 집착한다는 Scanzoni(1975)의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여학생은 가부장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서 근대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남성집단에 비해 종속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서 더 열등감을 경험하고 이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생활 가치관에 대해 일관성은 없으나 남녀

학생간 사고방식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근대적 경향을 보인 영역은 가사노동에서 여학생이 4.13점이며, 부모-자녀관계에서 남학생이 2.65점으로 가장 전통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학년제에 따른 가정생활 가치관은 고등학교 2학년이 평균 3.40점으로 가장 근대적이며 중학교 1학년이 3.14점으로 가장 낮아 중학교 1학년들은 다소 근대적이긴 하나 다른 학년에 비해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근대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가정생활 가치관은 인문계 학생이 평균 3.34점으로 실업계 학생보다는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家族生活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P < .001), 학년(P < .001), 계열(P < .001),父의학력(P < .001),父의 직업(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61점, 학년에는는 중학교 3학년이 3.66점, 계열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3.47점으로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父의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대적이며,父의 직업에서는 전문직인 경우 가장 근대적 가치관

이 나타났고 농.어.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나타났다.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父의 직업과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체로 가족생활이 아버지 주도형이며 아버지에 의해 가족생활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餘暇時間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관은 학년(P < .001), 생활수준(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표 2) 背景變因에 따른 家庭生活 價値觀 差異(5점만점)

가정생활 가치관		가족생활	여가시간	부모관계	친척관계	가정경제	가래	가사노동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배경변인									
전 체		3.41 (.71)	2.87 (1.05)	2.75 (.48)	2.98 (.61)	3.51 (.80)	3.28 (.72)	3.84 (.69)	3.25 (.47)
성 별	남	3.19 (.68)	2.88 (1.04)	2.65 (.45)	2.83 (.59)	3.18 (.76)	3.08 (.70)	3.53 (.70)	3.05 (.44)
	여	3.61 (.68)	2.85 (1.06)	2.84 (.49)	3.13 (.59)	3.84 (.69)	3.48 (.68)	4.13 (.54)	3.45 (1.41)
	F-Value	*** -8.80	*** .39	*** -5.80	*** -7.21	*** -12.9	*** -8.1	*** -13.55	*** -13.44
학 년	중 1	3.32 (.69)	1.99 (.88)	2.68 (.51)	2.82 (.62)	3.47 (.84)	3.16 (.75)	3.82 (.67)	3.14 (.53)
	중 2	3.36 (.70)	2.74 (1.00)	2.66 (.42)	2.83 (.55)	3.46 (.75)	3.18 (.69)	3.73 (.68)	3.16 (.41)
	중 3	3.66 (.71)	2.85 (1.02)	2.84 (.48)	3.08 (.68)	3.63 (.84)	3.38 (.74)	3.94 (.73)	3.37 (.50)
	고 1	3.27 (.71)	3.12 (.98)	2.69 (.47)	2.94 (.60)	3.46 (.78)	3.18 (.71)	3.78 (.63)	3.19 (.47)
	고 2	3.49 (.67)	3.07 (.97)	2.84 (.53)	3.13 (.68)	3.66 (.78)	3.52 (.70)	4.01 (.66)	3.40 (.43)
	고 3	3.30 (.69)	3.07 (1.14)	2.78 (.46)	3.12 (.59)	3.36 (.80)	3.29 (.70)	3.75 (.73)	3.24 (.47)
	F-Value	*** 6.31	*** 15.45	*** 4.29	*** 7.31	* 2.78	*** 5.303	** 3.77	*** 7.33
계 열	인문계	3.47 (.66)	3.08 (1.08)	2.79 (.50)	3.12 (.64)	3.59 (.75)	3.44 (.74)	3.91 (.63)	3.34 (.44)
	실업계	3.24 (.71)	3.10 (1.03)	2.75 (.48)	3.01 (.62)	3.40 (.82)	3.22 (.69)	3.78 (.71)	3.21 (.47)
	F-Value	*** 3.36	*** -2.5	.81	1.72	* 2.39	** 2.96	1.92	** 2.98

가정생활 가치관		가족생활	여가시간	부모관계	친척관계	가정경제	가 레	가사노동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배경변인	국 졸	3.27 (.69)	2.75 (1.02)	2.66 (.48)	2.97 (.66)	3.52 (.75)	3.25 (.71)	3.83 (.65)	3.20 (.46)
	중 졸	3.36 (.68)	2.94 (1.11)	2.74 (.46)	3.01 (.54)	3.53 (.77)	3.33 (.75)	3.86 (.72)	3.27 (.45)
	고 졸	3.45 (.73)	2.91 (1.06)	2.78 (.50)	3.00 (.63)	3.49 (.82)	3.26 (.72)	3.85 (.69)	3.27 (.50)
	전 문 초 대 졸	3.53 (.39)	2.50 (1.02)	2.85 (.47)	3.31 (.60)	3.74 (.73)	3.42 (.62)	3.76 (.50)	3.38 (.38)
	대 졸 대학원졸	3.54 (.77)	2.68 (1.02)	2.80 (.51)	2.86 (.54)	3.50 (.93)	3.31 (.72)	3.75 (.81)	3.25 (.49)
		3.77 (.62)	3.30 (.83)	2.85 (.48)	2.99 (.55)	3.56 (.70)	3.29 (.77)	3.92 (.51)	3.35 (.38)
	F-Value	4.22	1.58	2.09	1.39	.29	.37	.41	.92
父 의 학 력	전 문 직	3.64 (.64)	2.84 (.91)	2.77 (.47)	2.81 (.58)	.56 (.78)	3.20 (.69)	3.79 (.59)	3.25 (.40)
	행 정 직	3.48 (.76)	2.78 (.96)	2.94 (.46)	3.03 (.50)	3.63 (.83)	3.38 (.65)	3.88 (.78)	3.35 (.50)
	사 무 직	3.42 (.72)	2.86 (1.15)	2.82 (.49)	3.06 (.69)	3.49 (.82)	3.15 (.70)	3.76 (.70)	3.25 (.50)
	판 매 직	3.55 (.74)	3.05 (1.15)	2.77 (.51)	3.09 (.57)	3.74 (.81)	3.45 (.71)	4.04 (.54)	3.39 (.46)
	서비스업	3.27 (.73)	2.96 (1.07)	2.71 (.56)	2.94 (.61)	3.27 (.84)	3.13 (.78)	3.67 (.80)	3.13 (.56)
	근 로 자 기 능 공 농·어· 축 산 업	3.39 (.67)	2.96 (1.05)	2.75 (.47)	3.02 (.63)	3.49 (.72)	3.24 (.67)	3.82 (.62)	3.24 (.43)
		3.35 (.69)	2.78 (1.05)	2.71 (.47)	2.8 (.60)	3.56 (.78)	3.36 (.74)	3.88 (.69)	3.25 (.46)
F-Value	2.55	.94	1.84	1.46	2.58	2.45	2.15	2.03	
가 족 형 태	핵 가 족	3.42 (.71)	2.86 (1.04)	2.74 (.48)	2.99 (.63)	3.50 (.81)	3.28 (.74)	3.83 (.71)	3.25 (.48)
	확 대 가 족	3.38 (.72)	2.87 (1.08)	2.76 (.47)	2.98 (.54)	3.58 (.75)	3.30 (.67)	3.87 (.63)	3.27 (.44)
	F-Value	.69	-.11	-.47	.09	-1.04	-.43	-.70	-.47
생 활 수 준	상	3.34 (.68)	2.79 (1.15)	2.68 (.47)	2.87 (.50)	3.38 (.74)	3.17 (.75)	3.88 (.58)	3.18 (.39)
	중 상	3.47 (.76)	2.71 (.97)	2.70 (.49)	2.88 (.56)	3.60 (.80)	3.23 (.71)	3.87 (.67)	3.24 (.48)
	중	3.40 (.70)	2.89 (1.09)	2.76 (.48)	3.02 (.62)	3.41 (.79)	3.30 (.71)	3.83 (.69)	3.26 (.46)
	중 하	3.40 (.65)	3.11 (.91)	2.81 (.46)	3.06 (.63)	3.43 (.85)	3.32 (.76)	3.75 (.74)	3.26 (.49)
	하	3.07 (.64)	2.91 (1.00)	2.60 (.41)	2.81 (.77)	3.14 (.81)	3.17 (.75)	3.59 (.78)	3.03 (.52)
F-Value	1.38	2.38	1.71	2.78	1.96	.78	1.05	1.29	

주 거 지 역	시지역	3.44 (.72)	2.99 (1.00)	2.80 (.48)	2.95 (.61)	3.46 (.83)	3.21 (.71)	3.78 (.70)	3.24 (.49)
	읍·면 지역	3.39 (.70)	2.78 (1.07)	2.71 (.48)	3.02 (.61)	3.56 (.77)	3.34 (.73)	3.89 (.68)	3.27 (.46)
	F-Value	1.11	2.80	2.68	-1.48	-1.87	-2.5	-2.34	-.86

P<.05* P<.01* P<.001***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3.12점, 생활수준이 “중하” 집단이 3.11점으로 가장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다 나타났으나 여가시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영역 전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대적이었으나 유일하게 남학생이 더 근대적 경향을 보인 영역이기도 하다.

(4) 父母—子女關係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P<.001), 학년(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들이 더 전통적인 성향을 보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親戚 및 이웃關係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친척 및 이웃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P<.001), 학년(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13점,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3.13점으로 근대적 가치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척간의 상부상조는 미덕이며, 친척과 이웃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석해야 하고, 무조건 친척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학생의 점수가 2.83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친척 및 이웃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家政經濟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가정경제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P<.001), 학년(P<.05), 계열(P<.05),父의 직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84점,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3.66점, 계열에서는 실업계 학생 3.40

점,父의 직업에서는 판매직이 3.74점으로 근대적 가치관이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은 가정경제에 대한 가치관에서만 인문계 학생보다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에서 큰 돈 관리와 경제권, 가족부양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직업보다는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 家禮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가례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P<.001), 학년(P<.001), 계열(P<.01),父의 직업(P<.005)에 따라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48점,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3.52점, 계열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3.44점,父의 직업에서는 판매직이 3.45점으로 근대적인 가치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식, 회갑등은 널리 알려서 서로 부조금을 주고 받아야 하며 배우자를 정할 때 공합을 보아야 하고 제사 음식 준비는 격식에 맞추어서 차려야 한다는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8)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觀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P<.001), 학년(P<.01),父의 직업(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4.13점,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4.01점,父의 직업에서는 판매직이 4.04점으로 가장 근대적인 가치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는 온 가족이 분담하여 각자 자기일은 자신이 해야 하며 남학생들도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과 결혼후 여성이 직장이 없더라도 가사를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다른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이, 실업계 학생일수록,父의 학

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농·어·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背景變因에 따른 家政教科 關心度の 差異

가정교과 전체 관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으로 다소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교과 전체 관심도의 차이는 성별($P<.05$), 학년($P<.05$), 생활수준($P<.01$), 주

(표 3) 背景變因에 따른 家政教科 關心度の 差異 (5점만점)

배 경 변 인		관 심 도		
		M	S.D	F(T)Value
전 체		3.74	.67	
성 별	남	3.69	.70	-2.42*
	여	3.80	.65	
학 년	중학교 1학년	3.97	.64	2.36*
	중학교 2학년	3.68	.71	
	중학교 3학년	3.72	.68	
	고등학교 1학년	3.74	.67	
	고등학교 2학년	3.68	.70	
	고등학교 3학년	3.80	.55	
계 열	인 문 계	3.74	.68	0.1
	실 업 계	3.73	.63	
아버지 학력	국 졸	3.45	.71	.76
	중 졸	3.80	.63	
	고 졸	3.71	.71	
	전문·초급대졸	3.80	.47	
	대 졸	3.71	.67	
	대학원졸	3.67	.81	
아버지 직업	전 문 직	3.70	.81	.97
	행 정 직	3.71	.70	
	사 무 직	3.65	.66	
	판 매 직	3.75	.87	
	서비스업	3.69	.67	
	근로자 및 기능직	3.71	.68	
	농·어·축산업	3.81	.60	
	기 타	3.77	.66	
가족형태	핵 가족	3.75	.66	.68
	확대가족	3.71	.72	
생활수준	상	4.05	.61	3.41**
	중 상	3.80	.69	
	중	3.72	.66	
	중 하	3.65	.65	
	하	3.54		
주거지역	시 지 역	3.64	.70	-3.97***
	읍·면 지역	3.83	.64	

$P<.05$ * $P<.01$ ** $P<.001$ ***

거지역(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평균 3.69점, 여학생이 3.80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3.97점으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생활수준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변인 중에서 생활수준 “상”인 경우

〈표 4〉 家政教科에 대한 關心도와 家庭生活 價値觀과의 關係

영역 관심도	가족생활	여가시간	부모-자녀 관계	친척 및 이웃관계	가정경제	가 레	가사노동	전 체 가 치 관
가정교과	.07*	.10**	.14***	.08**	-.01	.04	-.04	.07*
가정경영	.10**	.09**	.17***	.11***	.03	.11***	.01	.12***
의 생활	.01	-.03	-.01	-.03	-.05	.07*	-.03	-.00
식 생활	.06*	.06*	.08*	.01*	-.01	.01	-.02	.03
주 생활	.05	.05	.04	.03	.04	.01	-.03	.04
가족·아동	.04	.23***	.15**	.07*	.00*	.05	-.05	.07*
전체관심도	-.05	-.13***	-.12***	-.08*	.03	-.05	.07*	-.05

P<.05* P<.01** P<.001***

〈표 5〉 背景變因과 家政教科 關心도가 家庭生活 價値觀에 미치는 影響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종속 변인	가족생활	여가시간	부모관계	친척관계	가정경제	가 레	가사노동	가정생활 가 치 관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 별	.43 .30	-	.20 .21	.29 .24	.64 .41	.39 .27	.59 .43	.40 .43
학 년	.60 .14	.16 .23	.03 .09	.06 .16	-	.08 .18	-	.06 .18
계 열	-.17 -.21	-	-	-	-	-.10 -.12	-	-.08 -.15
부 의 학 력	.07 .13	-	.04 .12	-	-	-	-	-
가 족 대 형	-	-	-	-	.11 .07	-	-	-
주 거 지 역	-	-	-	.08 .07	-	.12 .09	-	-
관심도	-.02 -.11	-.03 -.13	-.02 -.17	-.02 .12	-	-.02 -.11	-	-.01 -.12
상 수	2.93	3.07	2.68	2.60	2.40	2.79	2.94	2.83
F 값	*** 26.31	*** 30.55	*** 19.19	*** 22.72	*** 83.79	*** 18.44	*** 185.06	*** 53.68
R ²	.14	.07	.09	.10	.17	.12	.19	.21

P<.05* P<.01** P<.001***

평균 4.05점으로 가장 관심도가 높았다. 주거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이 3.83점으로 시지역 3.64점 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父의 학력과 직업 및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생활수준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일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家政教科에 대한 關心度와 家庭生活 價値觀 과의 關係

중고등학생의 가정교과 관심도와 가정생활 하위 영역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여가시간($r=-.13$)과 부모-자녀관계($r=-.12$), 친척 및 이웃관계($r=-.08$)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가사노동은($r=.07$)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수록 여가시간과 부모-자녀관계, 친척 및 이웃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근대적 성향을 나타내며,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근대적 성향임을 의미한다.

가정교과 분야별 관심도와 가정생활 전체 가치관과의 상관계수는 가정교과($r=.07$)와 가정경영 $r=.12$), 가족관계 및 아동($r=.07$)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정교과와 가정경영, 가족관계 및 아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가치관은 근대적 성향임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중고등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와 가정생활 가치관과의 관계는 가정교과 분야별과 영역별로는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가정교과 전체관심도와 가정생활 전체 가치관과의 관계는 상관계수($r=-.05$)으로 나타나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5) 배경변인과 가정교과 관심도가 가정생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중고등학생의 배경변인과 가정교과 관심도가 가정생활 전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beta=.43$), 학년($\beta=.18$), 계열($\beta=-.15$), 가정교과 관심도($\beta=-.12$)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가정생활 가치관의 총분산을 21% 설명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여학생이며 인문계 학생이고 학년이 높으며 가정교과 관심도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가정생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배경변인과 가정교과 관심도가 가정생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전체 가치관은 대체로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각 가치관 영역별로는 가족생활, 가정경제, 가례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비교적 근대적인 경향 인데 반해 여가시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친척 및 이웃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다소 전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생활 가치관에 대해 일관성은 없으나 전통과 근대의 이원 원리로 이론적으로나 일반론에 있어서는 근대화되고 있으면서 행동면이나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각 영역중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근대적이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전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여성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한 여성 취업률 증가 및 사회진출, 경제적인 능력, 기계기술의 발달에 의해 여성과 타가족원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가사에 대한 책임을 타가족원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점이 있는 반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전통을 지켜야 하며 부모의 봉양문제 등은 자식의 도리이며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2.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성별 ($P<.001$), 학년 ($P<.001$), 계열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학년에서는 고 2학년이, 계열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의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학생들에게 뿌리깊이 전통성을 고수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 가정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계열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가정경제

에 대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큰 돈 관리와 경제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족부양 역시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중고등학생의 가정교과 전체 관심도는 3.74점으로 다소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교과 관심도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P<.001$), 학년($P<.05$), 생활 수준($P<.01$), 주거지역($P<.001$)에서 유의적 차이가 인정되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생활수준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관심이 높고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수준 “상”에서 4.05 점이 나타나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주거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이 시지역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4. 중고등학생의 가정교과 관심도와 가정생활 하위 영역간의 관계는 여가시간 ($r=-.13$), 부모-자녀관계($r=-.12$), 친척 및 이웃관계($r=-.08$)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가사노동($r=.07$)은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정교과에 대해 관심도가 낮을수록 여가시간, 부모-자녀관계, 친척 및 이웃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근대적이며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 역시 근대적임을 의미한다.

5. 중고등학생의 배경변인 및 가정교과 관심도가 가정생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beta=.43$), 학년($\beta=.18$), 계열($\beta=-.15$), 가정교과 관심도($\beta=-.12$)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가정생활 가치관의 총 분산을 21% 설명할 수 있다. 즉 여학생이며 인문계 학생이고 학년이 높고 가정교과 관심도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가정생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기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이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녀간의 역할구분 즉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미래사회에도 이어져 성취적, 직업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중 역할로 인한 부담이 예측된다. 그러므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목의 남녀공수에 대해 남녀

가치관 차이를 고려한 교사들의 학습지도가 요구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남녀간의 대화 및 토론, 가정에서의 지도 등 실제적인 교육적 접근방 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전통적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해 효도와 봉양은 자식의 도리이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현대에 올바르게 전이될 수 있도록 부모와의 대화, 가족과 같은 취미, 가족내 역할담당의 유연성, 평등의식과 협업관계 유지 등 현대생활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 조사대상과 지역의 확대 등이 요구되며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이외의 다른 심리적 변인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대 아세아여성연구, 제 24집,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151.
2.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2호, 91-94.
3. 문숙재, 강이주(1984),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157.
4. 박인덕(1979), 한국 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 135.
5.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3호, 139.
6. 이연주(1984), 한국 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2호, 109.
7. 이종명(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6.
8. 임희섭(1980),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 한국의 사회와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 191-197.
9. 임옥희(1990), 미혼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1.
10. 정범모(1982),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교

- 육신서 75.
11. 전영자(1986), 여고생의 가족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46-48.
 12. 조옥라 外 4인(1986), 가부장제의 이론적 고찰, 가부장제와 한국사회, 한국여성학회편, 17-18.
 13. 최동숙(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27집, 172-173.
 14. 최재석(1983),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5. 황인실(1988), 대학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46-47.
 16. Adams, B.N(1980)., *The family-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 3rd. Ed., Chicago :Rand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424-425.
 17. Gibran, K(1973)., *The prophet*, New York : Alffred A. Knoptpublisher, 17-18.
 18. Nickell, P. Rice, A.S. & Tuc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NewYork:John Wiley & Sons, Inc., 60.
 19.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The Free Press, 5.
 20. Scanzoni, J.A (1975)., *Sex-roles, life styles and child bearibng*, New York:The Free Press, 25.
 21. Tomeh, ' A.K.(1978)., Sex-role orientation : Ananalysis of structural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r family*, 344.
 22. Weber, M (1947)., Class, Status, Party, in H. Gerth and C.W.Mills, Eds., London:Routledge & kegan paul, Ltd., 180-195.